

제5장 국내 나눔실태 2012-13

박주연·이희길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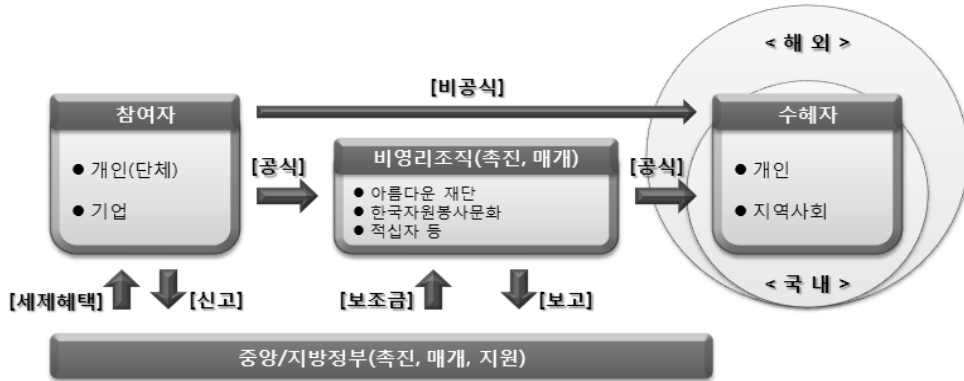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 (배경) '13년 연구(『국내 나눔실태 2013』)*의 후속작업 필요
 - * 현재 가용한 통계를 활용하여 국내 나눔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 최신 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연구결과 확산 필요성 제기
- (목적) 국내 나눔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최신 기초자료 제공

2. 검토범위 및 통계

- (범위) 기존 연구('13년)의 나눔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하여, 개인의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의 실태로 한정
 - (제외) 기업의 나눔과 비영리조직의 실태는 신뢰성 있는 통계 부족으로 '14년 연구에서 제외
 - * 단, 법인(기업 포함)의 기부금 규모는 참고로 파악

[그림 5-1] 나눔 프레임워크



자료 : 박주언·이희길, 『국내 나눔실태 2013』, 2014.



□ (통계) 신뢰성 확보된 국가 주요 승인통계 활용

<표 5-1> 주요 통계자료 현황

종류	작성기관	유형	대상	통계자료명	승인	최신	
기부	국세청	보고	개인/법인	국세통계연보	승인	2012	
	통계청	조사	개인 ¹⁾	사회조사	승인	2013	
			가구	가계동향조사	승인	2013	
	푸드뱅크사업단	보고	개인/기업	식품기부 현황	-	2013	
자원봉사	통계청	조사	개인 ¹⁾	사회조사	승인	2013	
생명 나눔	헌혈	대한적십자사	보고	개인	혈액사업통계연보	-	2013
	장기기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보고	개인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	-	2013

주 : 1) 『사회조사』는 조사연령이 2011년 부터 만 13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여기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결과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개인의 응답결과를 분석.

<참고> 기부 관련 통계자료 이용 유의사항

- 기부통계 간 비교 시 작성방법, 작성대상, 기부금의 포괄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

< 기부 관련 통계자료 현황 >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기부 관련 작성방법		기부금공제 신고자료 집계	면접조사	면접조사, 가계부 작성
기부 관련 작성주기		1년	2년	분기
작성대상		개인·법인	개인	가구
기부 관련 자료현황		기부금 신고인원 및 금액 등	기부참여율, 정기참여율, 기부경로 등	종교기부금,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기부금	일반기부금	포함	포함	포함
	종교단체 특별·구제한금	포함	포함	포함
	종교헌금	포함	제외	포함
	정치후원금	포함	제외	포함
	노조비 등	포함	제외	제외

Ⅱ. 국내 나눔실태 2012-13

1. 기부

가. 기부총액

-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과 법인의 기부총액*은 '12년 11조 84백억원으로 '06년(8조 14백억원) 대비 약 1.5배 증가

* (유의) 『국세통계연보』의 기부총액은 기부통계 작성이 주목적이 아니라 소득공제 신고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미신고한 기부금은 포함하지 않음

- 이는 **GDP의 약 0.9%** 수준으로, 미국(약 1.8%, 'Giving USA')보다는 낮음
 - (개인) '12년 개인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금을 합산한 7조 73백억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
 - (법인) '12년 법인의 기부금*은 4조 11백억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
- * 세부적인 기부금 신고현황은 <부표 5-1>, <부표 5-2> 참조

<표 5-2> 연도별 기부금 신고현황

(단위 :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중
기부금¹⁾ 총액	8.14	8.76	9.05	9.61	10.03	11.15	11.84	100.0
개인 기부금	5.35	5.44	5.67	6.15	6.53	7.09	7.73	65.3
근로소득자 ²⁾	4.20	4.15	4.27	4.64	4.86	5.18	5.54	46.8
종합소득자	1.14	1.28	1.40	1.51	1.67	1.90	2.19	18.5
법인 기부금	2.80	3.33	3.38	3.46	3.50	4.07	4.11	34.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주 : 1) 기부금은 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종교헌금(십일조, 보시)'과 '정치후원금', '노조비' 등도 포함함.
 2)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고한 기부금액 중 소득공제를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신고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식품기부액) 개인과 기업이 전국 425개 푸드뱅크 및 마켓('13년 3월 기준)에 기부한 식품의 집계액은 '13년 1,440억원으로 '08년(491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u>2008</u>	<u>2009</u>	<u>2010</u>	<u>2011</u>	<u>2012</u>	<u>2013</u>
식품 기부액(억원)	491	606	727	973	1,163	1,440

자료 : 푸드뱅크사업단.



나. 기부 참여율

① 기부 참여율 수준

-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 기부*에 참여한 비율(15세 이상)은 '13년 34.5%로 '11년(36.0%)보다 낮아졌으나 '06년(31.6%)에 비해 2.9%p 증가

* 기부 : 가족 이외 사람이나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
 (포함)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구제헌금, 적십자회비
 (제외) 종교적 헌금(십일조, 보시), 정치적 후원금

	2006	2009	2011	2013
기부(현금, 물품) 참여율(%)	31.6	32.3	36.0	3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기부 참여자는 물품보다는 주로 현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3년 현금기부 참여율은 32.4%, 물품기부 참여율은 5.9% 수준으로 '11년(34.4%, 8.6%)에 비해 감소
 - (현금기부) 정기 참여율은 '13년 16.9%로 '11년(11.1%)에 비해 증가하였고, 정기 참여자의 대부분은 '월단위 이하'(67.0%)로 기부
 - (물품기부) 정기 참여율은 '13년 3.0%로 '11년과 비슷하며, 주로 '반기'(53.6%)와 '분기'(32.2%) 단위로 기부

〈표 5-3〉 현금 및 물품 기부 참여율

(단위 : %)

		기부 참여율	정기 참여율	기부 주기별 응답 비중			
				월단위 이하	분기단위	반기단위	기타
현금 기부	2011	34.4	11.1	64.2	14.7	20.6	0.5
	2013	32.4	16.9	67.0	13.4	18.9	0.6
물품 기부	2011	8.6	3.0	15.8	28.1	54.8	1.4
	2013	5.9	3.0	12.7	32.2	53.6	1.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표에 제시된 '정기 참여율'은 15세 이상 전체 응답자를 분모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현금기부와 물품기부 각각의 참여자를 분모로 한 값과 차이가 있음.

2 성별 및 연령대별 참여율

- **(성별)** 남자의 기부 참여율은 여자보다 3~5%p 지속적으로 높음
 - '13년 남자의 기부 참여율은 37.3%, 여자의 참여율은 31.9% 수준
- **(연령대별)** '13년 40~50대의 기부 참여율(44.9%, 40.9%)은 '11년(45.7%, 41.1%)에 이어 40%를 상회
 - '13년 10대(15~19세) 및 20대의 기부 참여율은 '06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12.2%p, 5.6%p)으로 증가

〈표 5-4〉 성별 및 연령대별 기부 참여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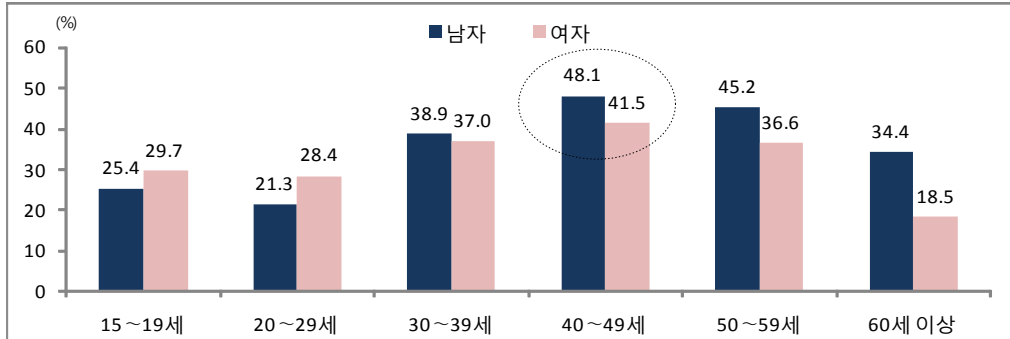
	2006	2009	2011	2013
전 체	31.6	32.3	36.0	34.5
남 자	34.3	34.2	38.3	37.3
여 자	29.1	30.4	33.7	31.9
15~19세	15.3	19.4	37.8	27.5
20~29세	19.2	23.2	25.5	24.8
30~39세	36.3	38.4	40.2	38.0
40~49세	42.2	42.9	45.7	44.9
50~59세	39.3	38.9	41.1	40.9
60세 이상	26.7	21.5	24.0	25.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성·연령대별)** 청년층(15~29세)에서는 여자의 기부 참여율이 남자보다 높은 반면,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남자의 기부 참여율이 여자보다 더 높음
 - '13년의 경우 40대 남자의 기부 참여율(48.1%)이 가장 높음



[그림 5-2] 2013년 성·연령대별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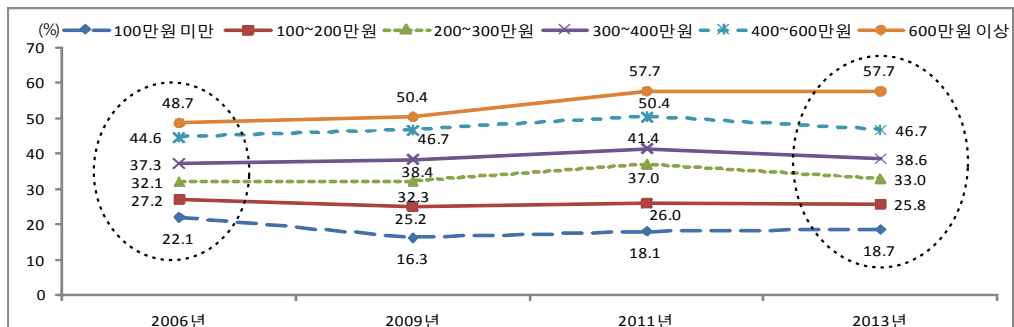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③ 소득규모별 및 지역별 참여율

□ (가구소득별) 월평균 가구소득이 클수록 기부 참여율도 높은 경향

- 월평균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13년 기부참여율은 57.7%인 반면, 월평균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경우 30%보다 낮은 수준
- 소득계층별 기부참여율 격차는 '06년 26.6%p(최대 48.7%-최저 22.1%)에서 '13년 39.0%p(최대 57.7%-최저 18.7%)로 확대

[그림 5-3]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별 기부 참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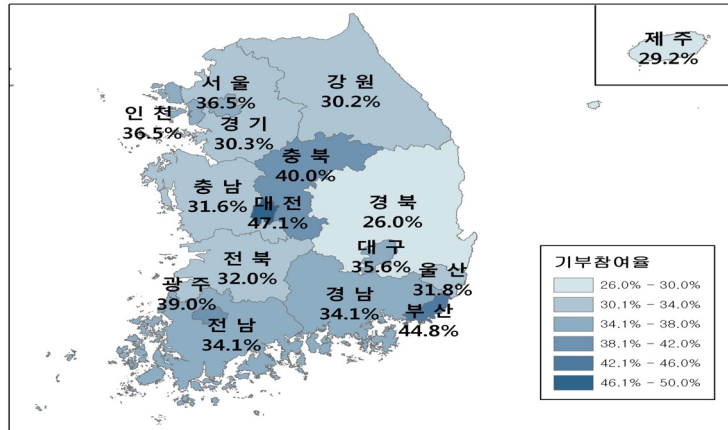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전체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을 합한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

- (지역별) '13년 기부 참여율은 대전(47.1%), 부산(44.8%), 충북(40.0%) 순으로 높았으며, 경북(26.0%)과 제주(29.2%)는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5-4] 2013년 지역별 기부 참여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다. 기부 참여 규모

- (현금기부) '13년 현금기부 참여자의 평균 참여횟수와 평균 기부금액은 6.5회, 20만 5천원으로 '11년(6.2회, 17만 4천원)에 비해 증가
 - * 기부 횟수와 금액의 중앙값(median)은 3회와 5만원 수준 : 현금기부자의 절반은 연간 3회 이상 참여하였으며 절반은 연간 5만원 이상 금액을 기부
 - (기부횟수) 30~40대는 연간 평균 7회 정도 참여한 반면, 20대와 50대는 평균 6회 정도 참여
 - (기부금액) 기부참여율이 높은 40~50대의 '13년 평균 기부금액은 25~27만원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커 기부참여를 주도

〈표 5-5〉 현금기부 평균 참여횟수 및 기부금액

(단위 : %, 회, 천원)

	현금기부 참여율	평균 참여횟수		평균 기부금액	
			중앙값		중앙값
2011	34.4	6.2	4.0	174	40
2013	32.4	6.5	3.0	205	50
15~19세	25.6	3.7	2.0	30	10
20~29세	23.1	6.6	3.0	125	50
30~39세	35.6	7.4	4.0	179	70
40~49세	41.9	7.2	4.0	253	100
50~59세	38.7	6.5	3.0	269	60
60세 이상	24.0	4.8	2.0	193	2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중앙값(median)은 현금기부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함.

*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은 <부표 5-3> 참조

□ (물품기부) '13년 물품기부 참여자의 평균 참여횟수는 3.3회로 '11년(3.5회)에 비해 약간 감소

〈표 5-6〉 물품기부 평균 참여횟수

(단위 : %, 회)

	물품기부 참여율	평균 참여횟수	
			중앙값
2011	8.6	3.5	2.0
2013	5.9	3.3	2.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중앙값(median)은 물품기부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함.

라. 기부 동기

- (참여 이유) 남자는 '기부단체/직장 등의 요청'(30.0%)의 비중이, 여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3.4%)와 '종교적 신념'(9.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표 5-7〉 기부 참여 이유 응답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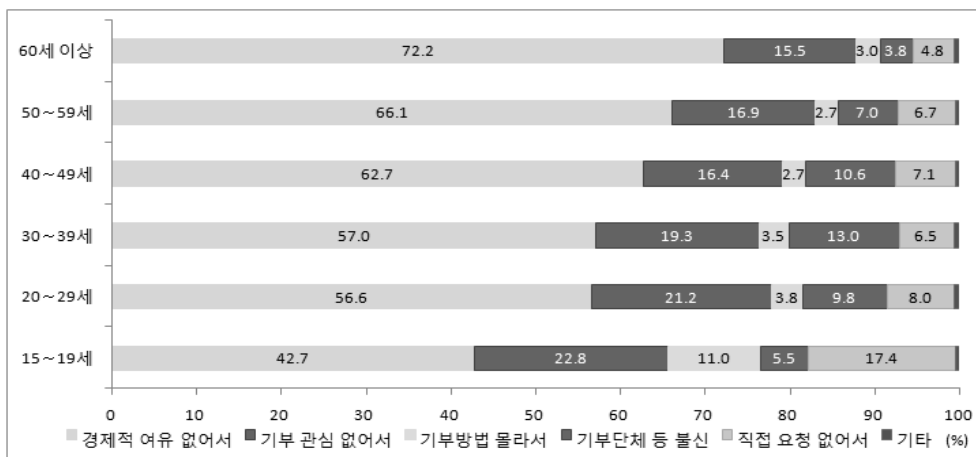
(단위 : %)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기부단체/ 직장 요청	개인적 신념	종교적 신념	지역사회/ 국가기여	기 타
2011	43.9	27.1	15.1	8.2	3.9	1.7
2013	40.6	26.8	17.8	8.1	4.5	2.2
남 자	38.1	30.0	17.0	6.8	5.4	2.7
여 자	43.4	23.2	18.7	9.6	3.4	1.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미참여 이유) 기부 미참여자는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를 많이 응답
 - '13년 기부 미참여 이유에 대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의 응답비중이 크며, 30~40대는 '기부단체 등의 불신'의 응답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음

[그림 5-5] 2013년 연령대별 기부 미참여 이유 응답비중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마. 기부대상 인지 및 기부 경로

① 기부대상 인지경로

- '13년 기부참여자가 기부대상을 인지한 경로로는 '대중매체'(25.8%)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학교'(23.0%)와 '시설/단체의 직접 홍보'(19.1%)의 비중도 높았음
- 남자는 '직장/학교'와 '시설/단체의 직접 홍보', 여자는 '대중매체'와 '종교단체' 등을 통해 기부대상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지

〈표 5-8〉 기부대상 인지경로 응답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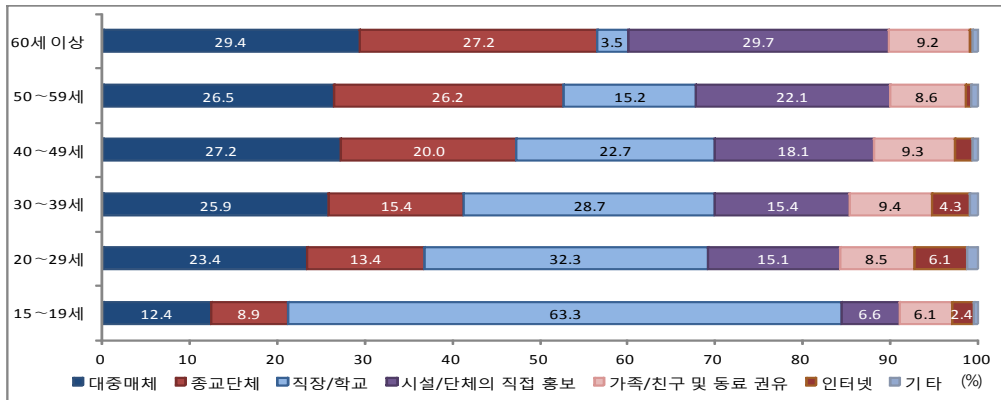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학교	시설/단체 직접 홍보	가족/친구, 동료 권유	인터넷	기 타
2011	30.5	20.5	22.0	15.2	8.8	2.2	0.8
2013	25.8	20.1	23.0	19.1	8.9	2.4	0.7
남 자	24.9	15.9	26.3	21.5	8.4	2.2	0.8
여 자	26.7	24.7	19.3	16.3	9.4	2.8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귀하가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셨던 단체나 개인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에 응답한 결과임

- 20~50대는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학교 등 다양한 경로로 기부대상을 인지한 반면, 10대(15~19세)는 대부분 '직장/학교'(13년, 63.3%)를 통해 인지

〔그림 5-6〕 2013년 연령대별 기부대상 인지경로 응답비중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50대 이상은 '종교단체'와 '시설/단체의 직접 홍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지

2 기부 경로

- (현금기부) '13년 현금기부자는 기부 경로로 '모금단체'(57.8%)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종교단체'(18.4%), '직장(기업)'(17.3%)도 많이 이용
- (성별) 남자는 '모금단체'와 '직장(기업)'을, 여자는 '언론기관'과 '종교단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
- (연령대별) 20~40대는 '직장(기업)'을, 50대 이상은 '모금단체'와 '종교단체'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

〈표 5-9〉 현금기부 경로(복수응답)

(단위 : %)

	현금기부 참여율	현금기부 경로별 응답비중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기타
2011	34.4	12.5	22.6	47.6	21.9	14.3	5.9
2013	32.4	12.9	12.2	57.8	18.4	17.3	2.1
남 자	35.9	12.6	10.8	59.9	14.9	21.7	2.0
여 자	29.0	13.3	14.0	55.3	22.7	12.1	2.2
15~19세	25.6	11.4	9.7	55.6	8.8	2.1	20.0
20~29세	23.1	11.0	14.5	47.3	14.4	26.5	1.7
30~39세	35.6	11.3	10.7	54.5	15.4	25.8	0.8
40~49세	41.9	14.4	12.9	57.8	18.8	20.8	0.8
50~59세	38.7	14.4	12.6	60.2	22.2	14.9	0.9
60세 이상	24.0	12.3	12.0	67.4	23.5	2.4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대상자에게 직접'은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환경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익사업 단체에 직접 후원하는 것임.

- (물품기부) '13년 물품기부자는 기부 경로로 '물품후원단체'(36.2%)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대상자에게 직접'(32.3%)과 '종교단체'(24.5%)도 많이 이용



〈표 5-10〉 물품기부 경로(복수응답)

(단위 : %)

	물품기부 참여율	물품기부 경로별 응답비중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물품 후원단체	종교단체	직장 (기업)	기타
2011	8.6	30.4	4.6	23.6	35.8	12.9	3.9
2013	5.9	32.3	2.3	36.2	24.5	8.8	3.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바. 향후 기부 및 유산기부 의사

- (기부 의사) 15세 이상 인구 중 향후 1년 이내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13년 48.2%로 '11년(45.8%)에 비해 2.4%p 증가
 - '13년 기부참여자는 80.7%가 재참여 의사를 보인 반면, 미참여자는 31.0%가 향후 기부할 의사를 보임
- (유산기부 의사) 15세 이상 인구 중 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13년 35.5%로 '11년(36.9%)에 비해 약간 감소
 - 기부참여자의 유산기부 의사(49.3%)가 미참여자(28.2%) 보다 뚜렷이 높음

〈표 5-11〉 향후 기부 및 유산기부 의사 응답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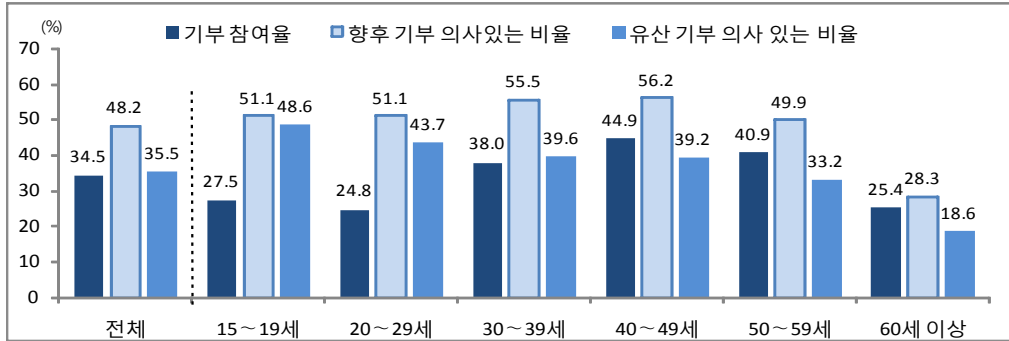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		향후 유산기부 의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011	45.8	54.2	36.9	63.1
2013	48.2	51.8	35.5	64.5
기부 참여자 중	80.7	19.3	49.3	50.7
기부 미참여자 중	31.0	69.0	28.2	71.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13년 30대, 40대에서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사의 비율(55.5%, 56.2%)이 가장 높음

- 청년층(15~29세)에서는 실제 기부 참여율은 낮지만 향후 기부나 유산기부를 할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7] 2013년 연령대별 향후 기부 및 유산기부 의사 응답률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2.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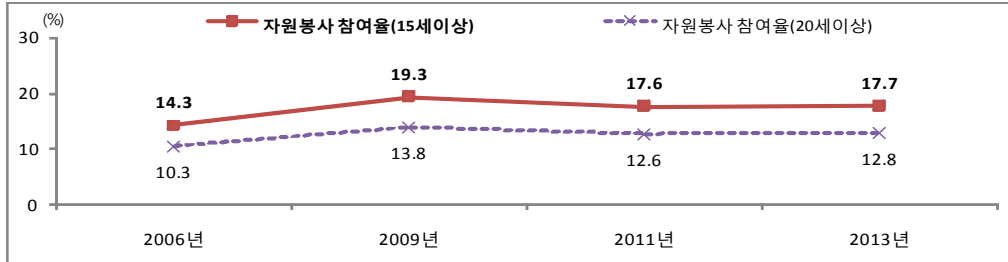
① 자원봉사 참여율 수준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15세 이상)은 '13년 17.7%로 '09년(19.3%)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06년(14.3%)보다는 3.4%p 증가

* 자원봉사 :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

- 참여율이 높은 10대(15~19세)를 제외하면, '13년 성인(20세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2.8% 수준

[그림 5-8] 15세 이상 및 20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한국의 경우 미국(25.4%), 영국(44%) 등에 비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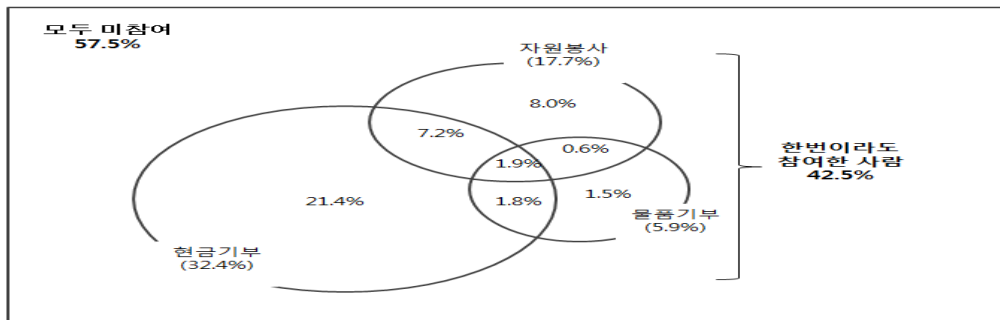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자원봉사 참여율 (연도, 기준)	17.7% (‘13년, 15세)	25.4% (‘13년, 16세)	44% (‘12/‘13년, 16세)	47.0% (‘10년, 15세)	36.2% (‘10년, 18세)

자료 : 한국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미국 노동통계국,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14; 영국 Cabinet Office, 「Community Life Survey」, 2013; 캐나다 통계청,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2012; 호주 통계청, 『Voluntary Work, Australia』, 2011.

※ 참고

- 기부나 자원봉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13년 42.5%'로 나타남

[그림 5-9] 2013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 15세 이상 개인의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13년 10.4%'로 '11년(8.5%)에 비해 1.9%p 증가

○ 정기참여자는 주로 '반기'(31.4%), '분기'(31.1%), '월'(26.9%) 단위로 참여

2 성별 및 연령대별 참여율

- (성별) '13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자(18.1%)가 남자(17.3%)보다 약간 높음
- (연령대별) '13년 20~5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0% 수준인 반면, 10대(15~19세)의 참여율은 75.4%로 매우 높음

* (학생자원봉사) 10대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는 '96년 연간 20시간 내외 봉사활동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이 제도화된 후, 2000년부터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내신에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크게 증가

- '13년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10대(15~19세, 75.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40대(17.3%), 50대(14.5%) 순으로 높았음

〈표 5-12〉 성별 및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

	2006	2009	2011	2013
전 체	14.3	19.3	17.6	17.7
남 자	14.0	19.3	17.1	17.3
여 자	14.6	19.3	18.0	18.1
15~19세	59.5	79.8	72.3	75.4
20~29세	8.3	13.9	13.2	13.7
30~39세	10.2	13.6	11.2	11.2
40~49세	13.9	18.6	17.0	17.3
50~59세	12.4	15.5	14.6	14.5
60세 이상	6.5	7.0	7.2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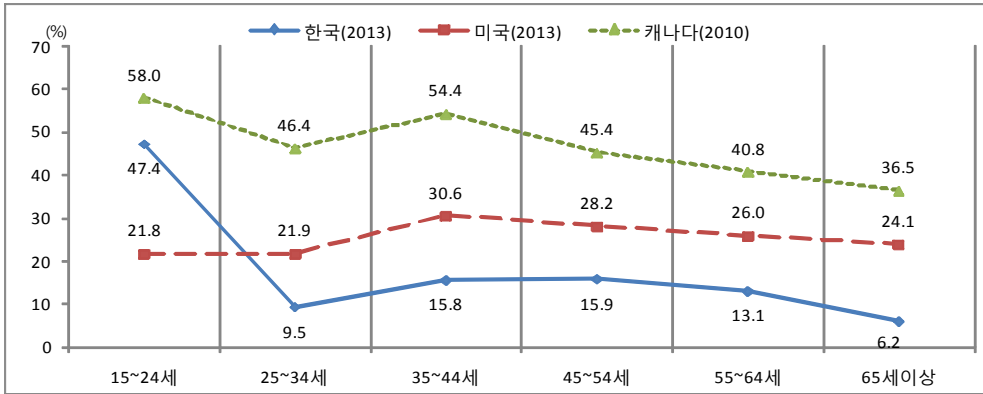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참고

- 한국('13년)의 15~24세 자원봉사 참여율은 미국보다 높으나, 25세 이상 연령계층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미국('13년)과 캐나다('10년)보다 현저히 낮음



[그림 5-10] 국내·외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미국 노동통계국,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14; 캐나다 통계청,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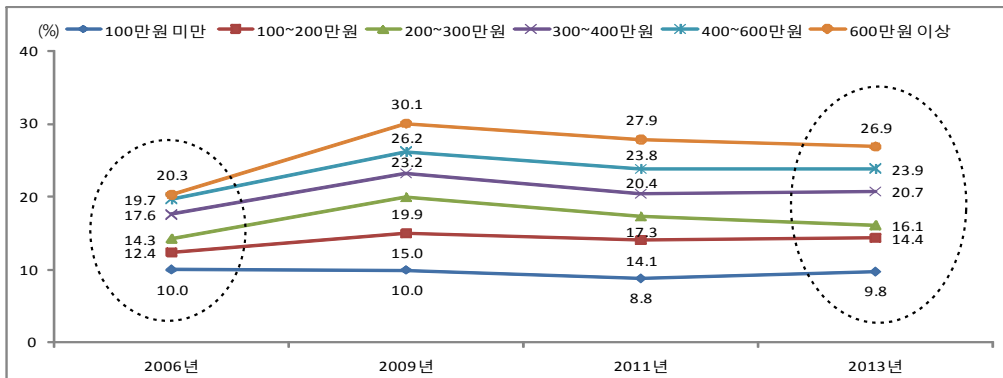
주 : 미국은 조사대상이 16세 이상 인구가므로 15~24세 구간의 경우 16~24세를 의미함.

③ 소득규모별 및 지역별 참여율

□ (가구소득별) 가구소득이 클수록 자원봉사 참여율도 증가함

-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13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0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06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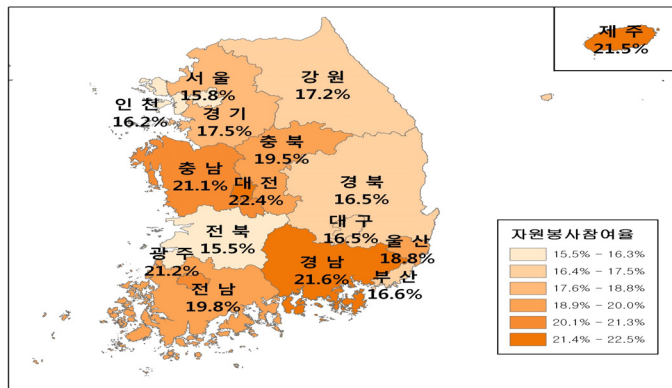
[그림 5-11]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별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지역별) '13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대전(22.4%), 경남(21.6%), 제주(21.5%), 광주(21.2%), 충남(21.1%) 지역에서 20%를 상회한 반면 서울(15.8%), 인천(16.2%), 대구·경북(16.5%), 부산(16.6%) 지역에서는 16% 내외를 보임

[그림 5-12] 2013년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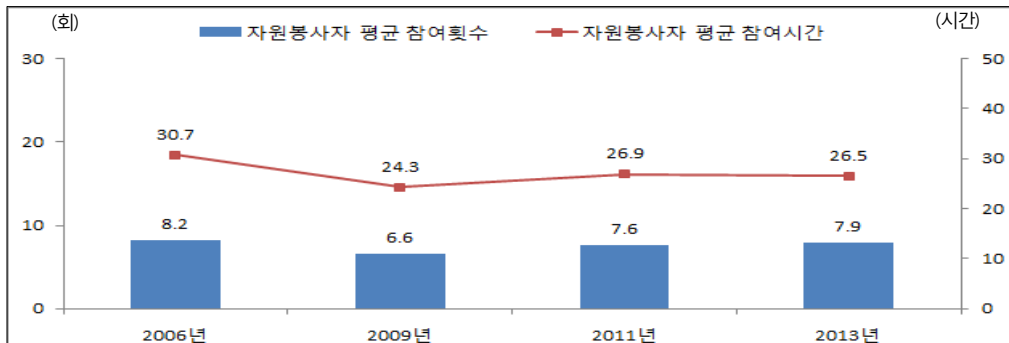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나. 자원봉사 참여 규모

- (평균) 자원봉사자의 연간 평균 참여횟수와 평균 봉사시간은 '13년 7.9회, 26.5시간으로 나타남
- (중앙값) '13년 자원봉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연간 4회 이상을 참여하고, 연간 12시간 이상을 봉사시간에 할애

[그림 5-13] 자원봉사 평균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추이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연령대별)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참여횟수와 평균 봉사시간이 함께 증가

- 40~50대는 '13년에 평균 9회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평균 30시간 정도를 봉사활동에 할애

〈표 5-13〉 연령대별 자원봉사 평균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단위 : %, 회, 시간)

	자원봉사 참여율	평균 참여횟수		평균 참여시간	
			중앙값		중앙값
2011	17.6	7.6	3.0	26.9	12.0
2013	17.7	7.9	4.0	26.5	12.0
15~19세	75.4	5.5	4.0	16.7	10.0
20~29세	13.7	7.4	3.0	28.7	15.0
30~39세	11.2	7.6	4.0	27.3	11.0
40~49세	17.3	9.3	4.0	30.5	14.0
50~59세	14.5	9.7	4.0	33.4	16.0
60세 이상	7.8	12.3	5.0	39.5	18.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다. 자원봉사단체 인지경로 및 활동분야

1 자원봉사단체 인지경로

- '13년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활동한 단체를 '직장/학교'(50.5%)를 통해 가장 많이 인지하였으며, '가족/친구, 동료 권유'(19.9%), '종교단체'(12.9%)를 통해서도 많이 인지

〈표 5-14〉 자원봉사단체 인지경로 응답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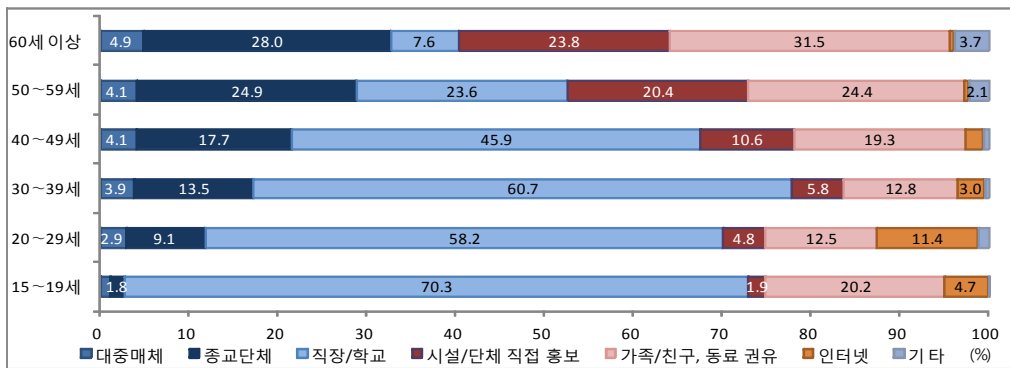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학교	시설/단체 직접 홍보	가족/친구, 동료 권유	인터넷	기 타
2011	3.6	13.7	49.1	8.8	20.4	3.1	1.3
2013	3.0	12.9	50.5	9.1	19.9	3.7	0.9
남 자	3.4	9.1	55.4	8.5	19.9	2.6	1.1
여 자	2.6	16.4	46.1	9.6	19.8	4.8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귀하가 자원봉사활동 시 소속했던 단체나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 등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임.

- 40대 이하는 자원봉사한 단체를 ‘직장/학교’를 통해 가장 많이 인지하였으며, 50대 이상은 ‘종교단체’, ‘가족/친구, 동료 권유’, ‘시설/단체의 직접 홍보’ 등을 통해 주로 인지
- 20대는 ‘인터넷’을 통해 인지한 비율이 1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5-14] 2013년 연령대별 자원봉사단체 인지경로 응답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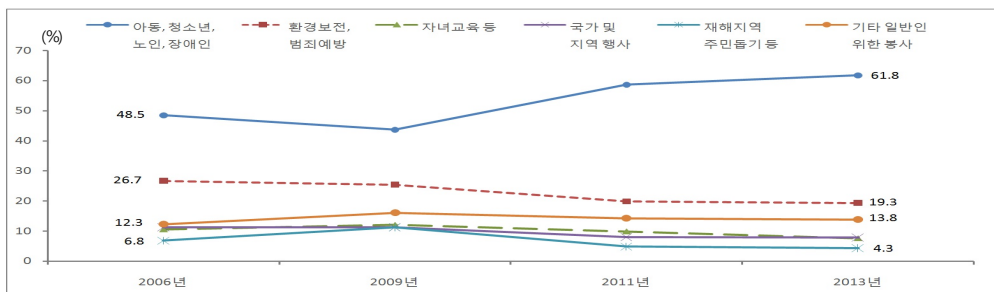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② 자원봉사 활동분야

- '13년 자원봉사자(복수응답)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61.8%) 분야와 '환경보전, 범죄예방'(19.3%) 분야에서 주로 활동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비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보전, 범죄예방' 분야의 경우 감소 추세

[그림 5-15] 자원봉사 활동분야 응답비중(복수응답)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연령대별)** 10대(15~19세)는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23.0%), 30~40대는 '자녀교육', 50대 이상은 '환경보전, 범죄예방'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음

〈표 5-15〉 성별 및 연령대별 자원봉사 활동분야(복수응답)

(단위 : %)

	자원 봉사 참여율	활동분야 응답비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등	국가 및 지역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기타 ¹⁾
2011	17.6	58.6	19.8	9.9	8.1	4.8	14.3
2013	17.7	61.8	19.3	7.6	7.9	4.3	13.8
남 자	17.3	58.9	24.5	2.1	9.0	5.7	14.3
여 자	18.1	64.4	14.5	12.7	6.8	3.0	13.4
15~19세	75.4	69.3	17.0	- ²⁾	6.2	0.7	23.0
20~29세	13.7	73.8	8.1	0.5	10.1	5.9	11.5
30~39세	11.2	59.5	13.2	21.0	6.3	6.5	6.4
40~49세	17.3	53.1	18.2	22.8	9.1	5.2	8.4
50~59세	14.5	56.8	26.9	3.6	9.9	7.6	10.7
60세이상	7.8	48.2	40.7	1.0	7.3	5.3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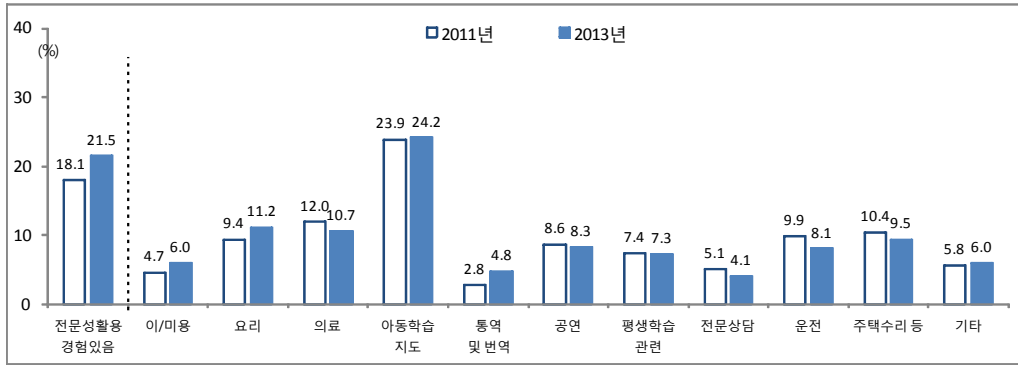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1) 관공서 업무지원, 농어촌봉사활동, 무료상담, 침 시술 등을 의미, 2) 해당 숫자 없음.

③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활용

- '13년 자원봉사자 중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활동한 사람은 21.5%로 '11년(18.1%)에 비해 3.4%p 증가
- '13년 '아동학습 지도'(24.2%)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요리'(11.2%), '의료'(10.7%), '주택수리'(9.5%) 순으로 많았음

[그림 5-16]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활동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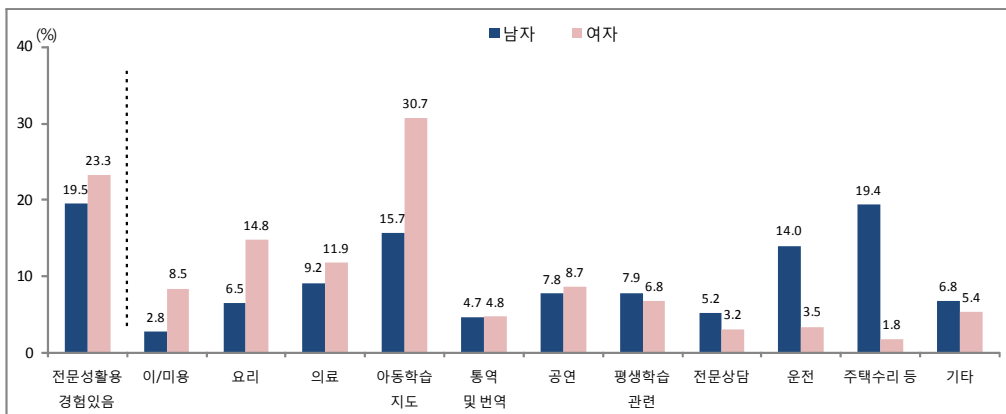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주 :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는란 '본인의 직업,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한 활동'을 의미하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한 경우 가장 주된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 '13년 자원봉사자 중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활동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23.3%)가 남자(19.5%)보다 높았음
- 남자는 '주택수리'(19.4%), '운전'(14.0%), 여자는 '아동학습지도'(30.7%), '요리'(14.8%), '이·미용'(8.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그림 5-17] 2013년 성별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활동 비중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라.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 15세 이상 인구 중 향후 2년 이내에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13년 42.1%로 '11년(44.5%)에 비해 약간 감소
 - '13년 자원봉사 참여자 중 86.2%는 계속 참여의사를 보인 반면, 자원봉사 미참여자는 32.6%만 '향후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

〈표 5-16〉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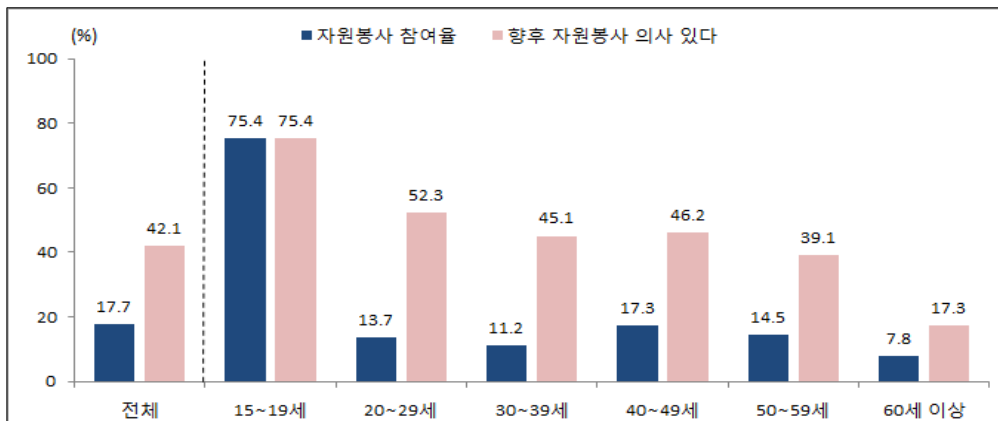
(단위 : %)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있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없다
2011	44.5	55.5
2013	42.1	57.9
자원봉사 참여자 중	86.2	13.8
자원봉사 미참여자 중	32.6	67.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 2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이 실제 '13년 자원봉사 참여율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비율과 실제 참여율 간의 차이는 20대가 38.6%p로 가장 크고 30~50대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18] 2013년 연령별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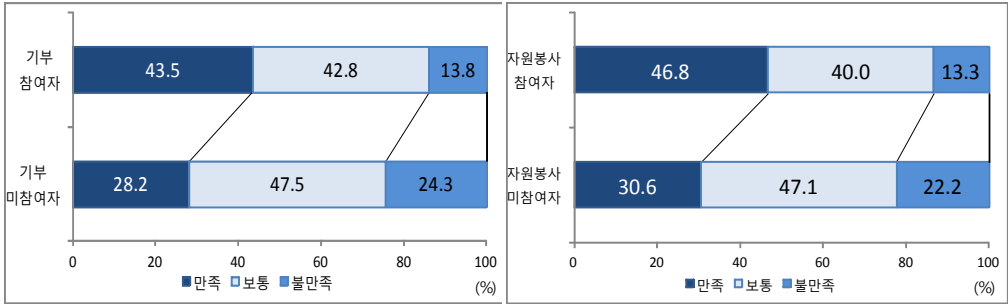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참고 나눔활동 참여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 동 자료는 2013년에 실시한 『사회조사』(통계청)에서 나눔활동(기부, 자원봉사)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삶에 대한 만족감’, ‘정서경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비교한 결과임

- (삶에 대한 만족감) 나눔활동(기부, 자원봉사)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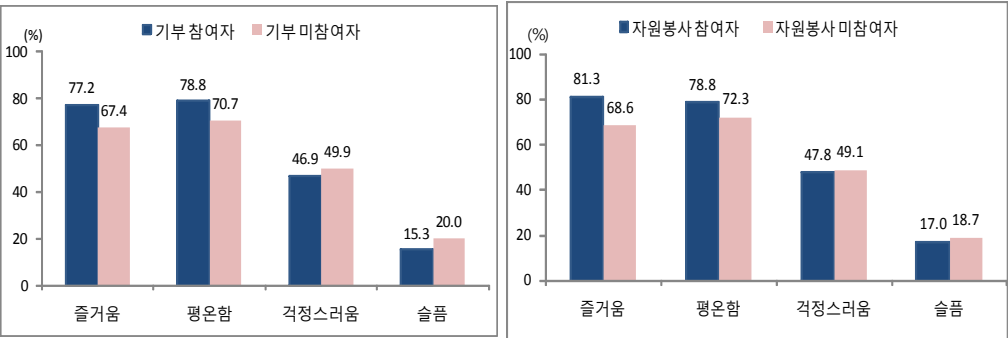
[그림 5-19] 2013년 기부 및 자원봉사 여부별 삶에 대한 만족감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주 : 만족은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 (정서경험) 나눔활동(기부, 자원봉사)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어제 하루 느낀 정서” 중 긍정적 정서(즐거움, 평온함)의 응답비율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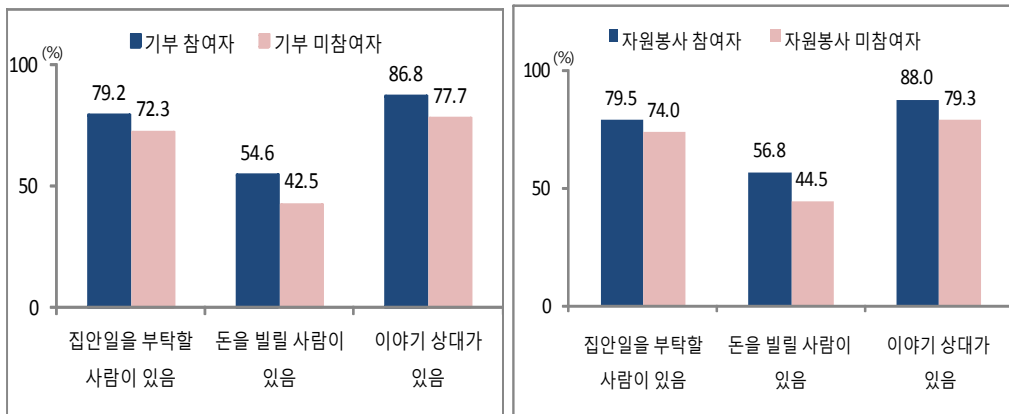
[그림 5-20] 2013년 기부 및 자원봉사 여부별 정서경험 응답비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주 : “귀하는 어제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사회적 관계망) 나눔활동(기부, 자원봉사)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공식적 지원(informal supports)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 기부 참여자는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돈을 빌릴 사람',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참여자 보다 각각 6.9%p, 12.1%p, 9.1%p 높음
 - (자원봉사) 자원봉사 참여자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돈을 빌릴 사람',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참여자 보다 각각 5.5%p, 12.3%p, 8.7%p 높음

[그림 5-21] 2013년 기부 및 자원봉사 여부별 사회적 관계망 응답비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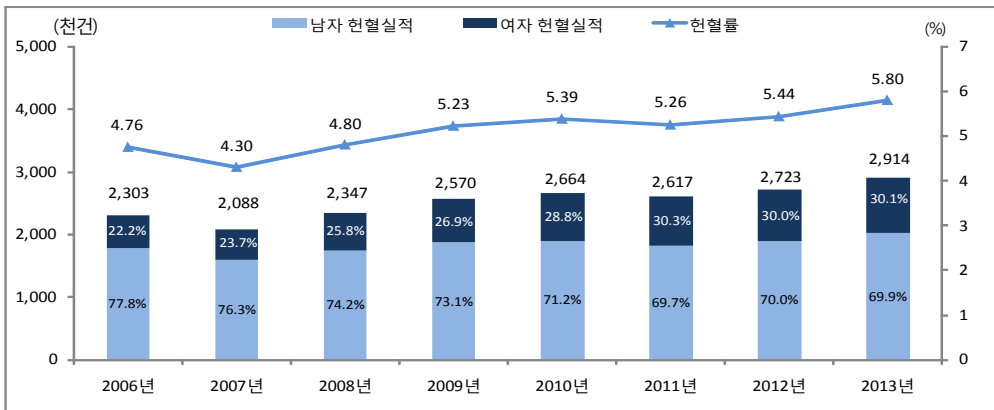
- 주 : 1)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2)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조사대상이 19세 이상임.

3. 생명나눔

가. 헌혈

- '13년 헌혈실적은 291만 4천건으로 '06년(230만 3천건)보다 61만 1천건 증가
 - 여자의 헌혈실적이 늘어나면서 남자의 헌혈비중은 '06년 77.8%에서 '13년 69.9%로 줄어들고, 여자의 헌혈비중은 22.2%에서 30.1%로 7.9%p 증가
- 총인구대비 헌혈실적인 헌혈률은 '13년 5.80%로 '06년(4.76%)에 비해 1.04%p 증가

[그림 5-22] 헌혈실적 및 헌혈률의 추이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각 년도.

주 : 헌혈률(%) = 총 헌혈실적 / 총 인구 * 100

- 우리나라 헌혈률('11년 기준, 약 5.3%)은 호주(5.9%)보다는 낮으나, 일본(4.1%), 프랑스('12년, 4.9%), 캐나다(4.9%) 보다는 높은 수준

<표 5-17> 국내·외 헌혈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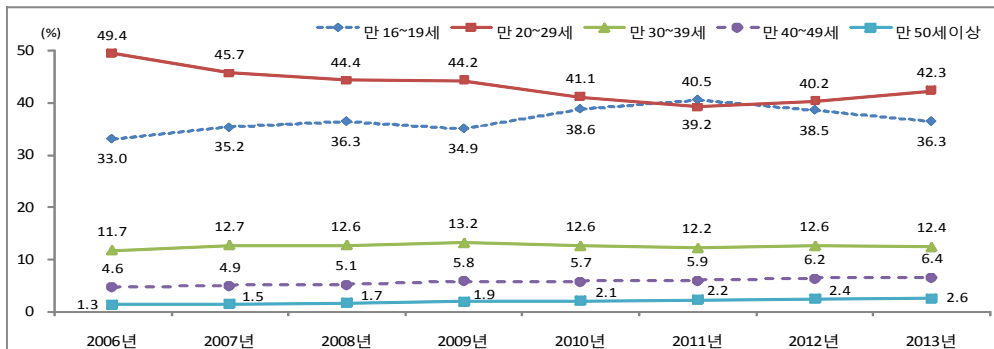
국가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헌혈률(%)	5.3 ('11년)	4.1 ('11년)	5.9 ('11년)	4.9 ('12년)	4.9 ('11년)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13; 2011년 혈액사업통계연보(일본); 적십자사 연간보고서 2011~2012(호주); 국립혈액원 key figure(프랑스); Hema Quebec 연간보고서(캐나다).



- 10대(16~19세)와 20대의 헌혈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의 '13년 헌혈실적은 18.8% 수준
- 10~20대의 헌혈 비중은 '13년 78.6%로 '06년(82.4%)에 비해 3.8%p 감소하였지만, 20대의 헌혈 비중은 '11년 이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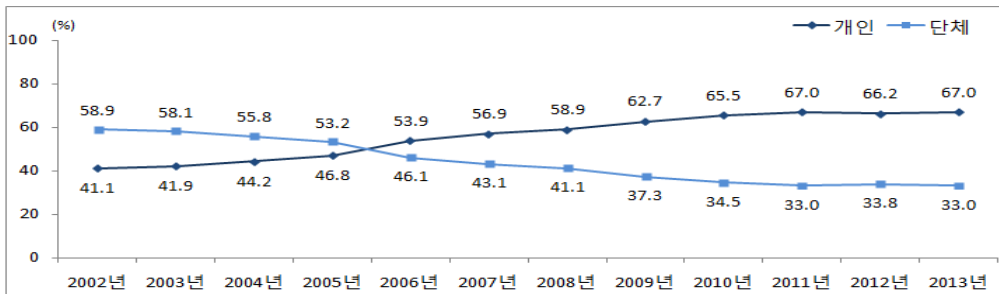
[그림 5-23] 연령대별 헌혈 비중 추이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각 년도.

- 40대 이상의 헌혈 비중은 '06년 5.9%에서 꾸준히 늘어나 '13년 9.0%로 증가
- 헌혈의 집, 가두, 원내 등을 통한 개인적인 헌혈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학교 등을 통한 단체 헌혈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
- '06년에는 개인과 단체의 헌혈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였으나, 이후 개인헌혈이 늘어나면서 '13년에는 개인헌혈이 단체헌혈의 2배 수준임

[그림 5-24] 개인·단체의 헌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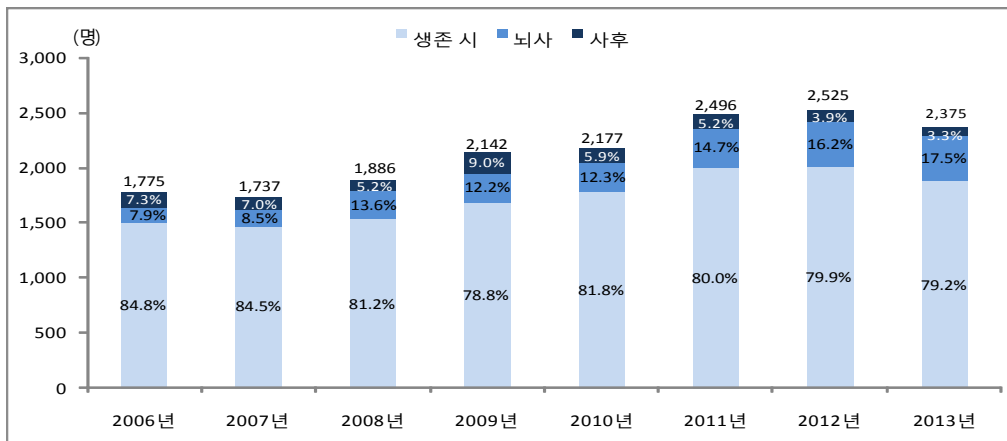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각 년도.

주 : 1) 개인 : 헌혈의 집, 가두, 원내, 2) 단체 :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종교, 일반단체.

나. 장기기증 및 이식

- 장기기증자 수는 '13년 2,375명으로 '12년(2,525명)보다 150명 줄었으나, '06년(1,775명)보다는 600명(약 1.3배) 증가
 - 장기기증자는 기증 시점에 따라 '생존 시', '뇌사', '사후' 기증자로 구분하며, '생존 시' 기증자('13년 79.2%)가 대부분을 차지
 - '뇌사' 장기기증자는 '13년 17.5%를 차지하여 '06년(7.9%)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

[그림 5-25] 장기기증자 수 및 기증유형별 비중 추이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시스템.

주 : '장기기증자'는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로 장기기증 시점에 따라 '생존 시', '뇌사', '사후' 기증자로 구분.

- 인구 백만명 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13년 8.4명으로 일본보다는 많으나 스페인, 미국, 호주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음

<표 5-18> 2013년 국내·외 뇌사 장기기증자 수

	한국	일본	미국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호주
뇌사 장기기증자 수(명)	416	84	8,267	1,655	876	111	391
인구 백만명 당 기증자 수(명)	8.4	0.7	26.0	35.1	10.9	22.0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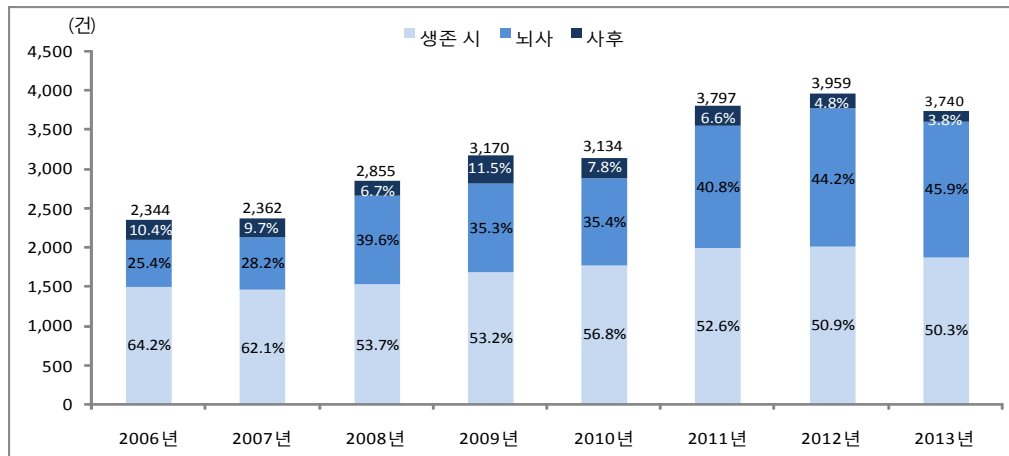
자료 : www.irodat.org.



□ 장기이식 건수는 '13년 3,740건으로 '12년(3,959건)에 비해 219건 줄었으나, '06년(2,344건)에 비해 1,396건(약 1.6배) 증가

○ '뇌사'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건수의 비중은 '13년 45.9%(1,716건)로 '06년 25.4%(596건)에 비해 20.5%p 증가

[그림 5-26] 장기이식 건수 및 기증유형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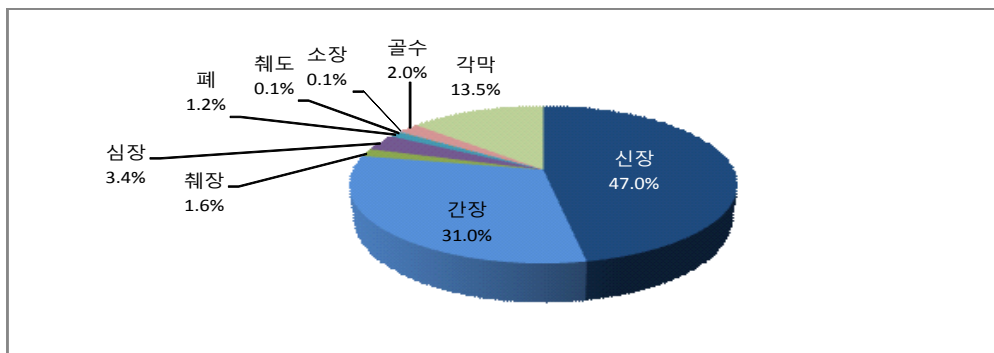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시스템.

주 : 장기기증자 수와 장기이식 건수의 차이는 기증자 1인의 다수 장기(신장, 간장 등)가 동시에 복수의 이식대기자에게 이식되는 경우로 인하여 발생함.

□ '13년 이식된 장기를 살펴보면, 신장(47.0%)과 간장(31.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각막(13.5%)과 심장(3.4%) 순으로 많았음

[그림 5-27] 2013년 장기별 이식 현황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시스템.

Ⅲ 향후 보완사항

- 『국내 나눔실태』 보고서의 내용적 **완결성 및 충실성 제고**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 존재
 - (나눔 종류)
 - (기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 미신고액 등을 포함하는 기부총액 추정방법을 고안하여 대표성 높은 지표값 제공
 - * (방안) 『Giving USA』 방법론 심층연구·적용
 - (자원봉사) 자원봉사 조사항목 및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상세하고 국제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
 - * (방안) 국제노동기구(ILO)의 『자원봉사활동측정 매뉴얼』(2011) 검토·준수
 - (기업) 나눔 참여자 중 ‘개인’ 외에 ‘기업’의 나눔, 즉 **사회공헌 실태통계**의 신뢰성 제고하여 내용 추가
 - * (방안)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전경련),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아름다운재단), 『국세통계연보』(국세청) 등의 검토·개선
 - (비영리조직)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의 재정,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추가
 - * (방안) 공익적인 비영리조직의 포괄범위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설정, 해당 조직이 제출한 행정자료와 정보공시자료를 실태파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 제도개선



【참 고 문 헌】

- 국세청.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
- 대한적십자사. 2013. 『혈액사업통계연보』.
- 손원익. 2013.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신경희. 201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서울연구원.
- 통계청. 각 년도. 『사회조사지침서』.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보도자료」.
-
- 국가통계포털(KOSIS) www.kosis.kr.
- e-나라지표 www.index.go.kr.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www.konos.go.kr/konosis.

【부 록】

1. 법인의 기부금 신고현황

※ 동 자료는 『국세통계연보』(국세청)에 제시된 법인의 2012년 기부금 신고현황으로, '법인규모', '상장·비상장여부', '업태'별 기부금 신고법인의 수와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12년 총 48만 2,574개 법인이 신고한 기부금액은 약 4조 1,123억원 규모
 - (법인규모) 규모가 큰 '일반법인'은 기부금 신고법인 수 중 19.2%를 차지하나 신고된 기부금액은 87.6%를 차지
 - (상장·비상장) 전체 신고법인의 0.4%에 불과한 '상장법인'이 전체 기부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6.1%를 차지

〈부표 5-1〉 2012년 규모 및 상장여부별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신고 법인 수	구성비	신고 기부금	법정·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구성비
2012년		482,574	100.0	4,112,276	1,473,145	2,639,131	100.0
규모 별	일반법인	92,703	19.2	3,601,272	1,309,204	2,292,068	87.6
	중소기업	389,871	80.8	511,004	163,941	347,063	12.4
상 장 여 부	상장법인	1,746	0.4	1,894,223	625,168	1,269,055	46.1
	비상장법인	480,828	99.6	2,218,053	847,977	1,370,076	53.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주 : 1) 2012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 **(업태)** 14개 업태 중 '제조업'이 신고법인의 수와 신고 기부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21.8%, 36.6%)을 보임
 - '금융·보험업'의 경우 신고법인 수의 비중(3.4%)은 작지만 신고 기부금액의 비중(24.3%)은 큼

<부표 5-2> 2012년 업태별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신고 법인 수		신고 기부금	법정·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구성비
	수	구성비		법정·특례 기부금	구성비		
2012년	482,574	100.0	4,112,276	1,473,145	2,639,131	100.0	
업태별	농·임·어업	7,666	1.6	8,928	3,280	5,648	0.2
	광업	971	0.2	14,612	7,323	7,289	0.4
	제조업	105,229	21.8	1,505,551	465,740	1,039,811	36.6
	전기·가스·수도업	1,265	0.3	191,797	62,217	129,580	4.7
	건설업	81,256	16.8	234,106	106,100	128,006	5.7
	도매업	97,962	20.3	252,329	64,102	188,227	6.1
	소매업	14,906	3.1	81,190	25,914	55,276	2.0
	음식·숙박업	4,720	1.0	36,138	15,229	20,909	0.9
	운수·창고·통신업	28,643	5.9	328,810	79,542	249,268	8.0
	금융·보험업	16,646	3.4	998,287	435,033	563,254	24.3
	부동산업	22,479	4.7	87,305	42,922	44,383	2.1
	서비스업	93,093	19.3	314,007	114,653	199,354	7.6
	보건업	1,585	0.3	56,627	49,732	6,895	1.4
	기타 업종	6,153	1.3	2,589	1,358	1,231	0.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주 : 1) 2012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3) 업태분류는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실적이 포함됨.

2.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

※ 동 자료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활용하여 전국의 '2인 이상 가구가 월평균 지출한 기부금'의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기부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종교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특정되지 않는 금액으로 **종교적 현금(십일조, 보시)**도 포함
-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 **정치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모금단체, 언론기관(신문사, TV) 등에 기부한 금액

-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은 '13년 46,371원으로 '11년(43,583원)에 비해 증가추세임
 - '13년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 중, '종교 기부금'(41,692원)은 기부금 지출액 전체의 89.9%를 차지한 반면,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4,679원)은 10.1%를 차지
 - 전체 기부금 지출액 중 '종교기부금'을 제외한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의 비중이 '11년 7.5%에서 '13년 10.1%로 증가
-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 대비 기부금 지출액의 비중은 '13년 1.42% 수준으로 '11년(1.40%)에 비해 0.02%p 증가

〈부표 5-3〉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 지출액(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 원, %)

항목	가계 지출액	기부금 지출액	종교기부금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가계지출액 대비 비중
			종교기부금	비중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비중	
산식	A	B	C	C/B	D	D/B	B/A
2011	3,114,946	43,583	40,324	92.5	3,259	7.5	1.40
2012	3,216,894	44,776	40,772	91.1	4,004	8.9	1.39
2013	3,261,590	46,371	41,692	89.9	4,679	10.1	1.4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